

옛 기와에 담은 佛法의 영원성

김석곤 개인전

‘佛빛 6·기와 속에 깃든 佛’

기와 위 금박으로 표현된 ‘佛빛’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불화가 김석곤 씨가 2월 11~1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에서 ‘기와 속에 깃든 佛’전을 연다. 김 씨는 이번 전시에서 기와에 금니와 금박을 입힌 기와의 작품을 보여준다.



불화가 김석곤 씨가 2월 11~1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에서 ‘기와 속에 깃든 佛’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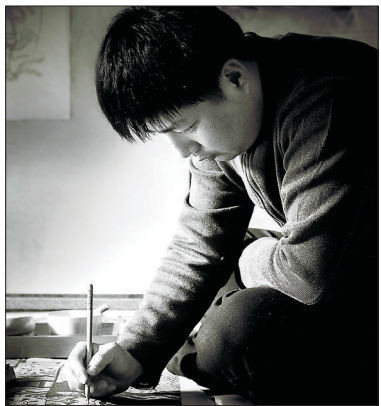
2월 11일부터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홍천사 기와에 금니로 불보살 표현
“대중들의 간절한 염원 투영”

했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반복해서 하다보니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기와 위에 부처님의 형상을 표현해 대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순금박과 금니를 사용해 금인(金人)인 부처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부처님 법의 영원성을 상징하죠. 전사가 끝난 후 기와작품은 홍천사에 기증해 홍천사 복원공사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석곤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48호 단청장 이수자이며 홍천사 불화소 화원으로 전통 불화작업과 문화재복원 보수 그리고 전통문화상품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733-4448

정혜숙 기자 bwjhs@hynbul.com



김석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와에 금니작업으로 부처님을 표현했다.

“홍천사에서 행사 기간 동안 기와에 불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가자들이 기와에 그림을 그리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품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김 작가는 홍천사가 보수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와를 기증받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보통 감지 위에 금니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기와에 금니를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터. 작가는 오랜 고민 끝에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작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전각의 지붕 위에 있던 기와로 조선시대 때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수 작업 덕분에 홍천사의 역사를 품고 있는 기와에 금니와 금박을 이용해 불보살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와의 표면을 그대로 살리고 금니를 뚝게 써서 불상을 표현해 음영대비가 일어나도록

‘김충현 현판글씨-서예가 건축을 만나다’

2월 25일까지 관훈동 백악미술관서



한국 서예의 대가 김충현의 현판 글씨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관훈동 백악미술관서 열린다. 사진은 내소사 일주문 편액

전북 부안 내소사 일주문, 경기도 동두천 자재암 일주문, 고양 선운사 일주문 등의 편액을 제작한 한국 서예의 대가 일종 김충현(1921~2006)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일종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남)가 주관하는 ‘김충현 현판글씨-서예가 건축을 만나다’전이 2월 25일까지 종로구 관훈

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충현은 동생인 여초(如初) 김충현(1927~2007)과 함께 한국 서예를 이끈 양대 산맥으로 불렸다. 이번 전시는 일종 선생의 작품 중 현판 실물 28점을 비롯해 사진, 탁본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또한 궁궐, 공공건물, 서원, 지인들의 집 등에 흩어져 있던 현판을 175점을 1년 6개월에 걸쳐 사진으로 찍어

도록으로 펴냈다. 도록에는 현판 글씨가 붙어 있는 건물 전경을 찍은 사진이 실려 이해를 돕는다.

전시를 주관한 일종선생기념사업회는 “이 전시는 김충현 선생이 다양한 계층에게 써 준 현판을 통해 20세기 한국사회 지성인들 간의 교류관계를 밝히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그의 현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시기별 글씨를 통해 서풍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 수 있도록 했다”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 1부에는 지인에게 써준 작품 등 사적인 현판이 2부에서는 사찰과 유적지 등 공적인 현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건춘문(建春門)’과 ‘영추문(迎秋門)’ 글씨 사진, 한글로 쓰인 ‘독립기념관’ ‘한강대교’ 탁본 등도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02)734-4205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복수가 나의 것’이라면... 모두 파멸

영화 ‘복수는 나의 것’

영화 ‘복수는 나의 것’(2002)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1탄이다. 이후에 나온 ‘올드 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강렬한 이미지와 탄탄한 스토리로 박찬욱 감독 스타일의 영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작품이라 평가하고 싶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이 이야기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집착이 빚어낸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실고 있다.

선전성 청각 장애인 류(신하균 분)에게 누나(임지은 분)는 유일한 가족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누나를 위해 류는 장기말단과 접촉해 자신의 신장과 전 재산 천 만원을 넘겨주고 누나를 위한 신장을 받기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나고, 그 때 병원에서부터 누나에게 적합한 신장을 찾아냈다는 전화가 걸려 온다. 수술 기회를 놓치게 되어 괴로워하는 류를 보고 그의 연인 영미(배우나 분)는 아이를 유괴하자고 제안한다. “딱 필요한 돈만 받고 돌려주는 거야. 이견 착한 유괴야...”

정말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모순된 사회에서 부자의 아이를 잡단 유괴하는 착한 방법을 통해 절박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된 비극, 상상보다 거대한 파국’이라는 영화의 카피처럼 영화의 주인공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된다.

류와 영미가 우연히 알게 된 중소기업체의 사장 동진(송강호 분)의 딸 유선(한보배 분)을 납치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력, 점점 더 잔혹해지는 복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족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작된 유괴는 또다른 죽음을 몰고 오고 이를 위해 복수의 문화가 거듭된다. 영화는 잔인한 복수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망자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업이 맞물리면서 빚어지는 아비규환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을 교화시킨 부처님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와 “아들을 살릴 약을 달라”고 애원한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마을로 내려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겨우 세 몇 개를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약을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은 가족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집착이 빚어낸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펼친다.

가족 잃은 슬픔 복수 갈날 세위

꼬리에 꼬리무는 비극의 윤희

주인공 스스로 파멸의 길 자초

부처님 ‘아들 잃은 여인’ 이야기로

‘죽음’ 인간사 일부임 일깨워줘



주웠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묻는다. “혹시 당신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오래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2년 전에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인은 또다른 집을 가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열 집, 스무 집 끝없이 돌아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결국 여인은 어느 누구의 집에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결국 그는 죽은 아들

의 시체를 화장터에 던지고 부처님을 찾아가다. “부처님 이제 그 일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이제 저의 귀의를 받아주소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에 이렇게 말한다. “오 착하다 착한 여인이여!!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지. 세상사 그 무엇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인은 이렇게 슬픔에서 벗어나 밝은 눈빛이 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물론 예상치 못한 죽음, 또 억울한 죽음도 있다. 영화 속 주인공 가족들의 죽음은 모두가 억울하다. 어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 억울한 죽음임에 분명하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상대를 향해 같이 되어 날아가 때 복수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복수가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복수는 또다른 업이 되어 윤희를 거듭한다. 그러니 복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의 것인 것이 너의 것이 되어 모두를 불행에 빠트리게 만든다. 결국 모두가 파멸이다.

보왕삼매에 이룬 말이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도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사바세계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함을 밝히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에서는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또다른 원망을 낳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억울함에 휩싸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 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 2의 화살, 제 3의 화살은 맞지 않아야 하므로.

정혜숙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쫄**”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최대 30% 절감 ↓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선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입학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명 KIBO 기술보유기업 인증 받자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강남 : 010-5097-08291
연남 : 010-6610-2337	연서 : 010-4597-5577
양성 : 010-6294-6126	서산 : 010-7301-5854
청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청원 : 010-9008-1110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음(매불이음), 대령, 관음, 응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정, 시왕도정, 전사시,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의식, 구병의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점작법 ■ 사 물 : 태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음, 종사영반, 점안의식, 사다라니(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3. 입학자격 : 중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남총회총본사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문재현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범맥과

대원문재현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세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